



## '火病'개념에 관한 화용론적 考察\*

김 순 용<sup>1)</sup> · 이 초 식<sup>2)</sup>

### 서 론

#### 연구의 필요성

Khim(1999)은 문헌적 고찰을 통해 火病은 '不當性'과 연관된 주관적 체험으로서 火病경험자는 자신의 문제를 火病이라고 自家 診斷하고 身體化하는 속성이 있다고 規定한 바 있었다. 또한 화병의 정서상태는 '火'로서, 火란 '불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억울하고 분한' 생각과 감정을 내재하는 상태라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주관적 체험에 대한 自家 診斷이란 스스로 火病이라는 용어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화병<sup>1)</sup>에 대한 대다수의 연구(Park, Kim, Kang & Kim, 2001; Kim, Lee, Lee, Eom & Whang, 1996; Min, 1989; Lee, 1977; Lee, Cho & Lee, 1989)에서처럼 '주관적 체험'인 화병을 관련요소, 증상 등으로 분류하여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화병의 보편적 규칙을 발견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러한 연구는 실제 화병이 있었던 상황을 이해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과 의문점을 갖게 하였다.

따라서 화병이라는 용어를 부여하는 상황-맥락적 의미를 파악함으로써만이 화병을 지닌 대상자에 대한 돌봄의 방향이 설정될 수 있음으로 <화병>이라는 말의 쓰임이 어떠한 것인지 파악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 연구를 기호(말)를 사용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논하는 현대 언어분석철학의 한 분파인 화

용론의 영역 내에서 전개하였다.

화용론(pragmatics)은 기호론(semiotics)의 한 분야로서 어원 부티가 프라그마티즘(pragmatism)과 연관되지만 필자는 생활 세계의 일상 언어를 철학적 분석대상으로 삼는 일상어 학파의 이론을 채용하고자 한다. 그것은 각 각의 문맥과 상황에 따라 언어사용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즉 사람들이 언어를 각 문맥과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용도와 그 의미를 연구하는 분야인 화용론은 본 연구에서 화병을 가진 사람의 발화내용의 맥락, 상황에 따른 분석 틀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사용되었다. 그럼으로 화병에 있어서의 상황적인 특성이 더 구체화됨으로서 화병을 가진 사람이 주장하는 '부당함'이란 의미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실제 예를 통해서 드러나게 됨으로 상황적인 것의 개념화가 용이해진다. 따라서 화용론은 situation(상황)에서의 context를 자세히 이해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것이 된다.

그렇다고 본 연구에서는, 火病이 있는 사람이 '不當하다'고 하는 믿음을 돌보는 자가 같이 가져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화병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믿고 있는 '不當性'에 관해서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분석적 해석적 사고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간호사의 독립적 역할 중 대부분이 상담, 건강교육 등 언어로 이루어지는 것에 미루어 볼 때 언어적 기호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논하는 화용론을 간호학에 도입함으로써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었다.

1) 화병은 한글로 화병 혹은 화병으로 표기되고 있어 연구자는 뉴에이스 국어사전(1999)에 의거하였다.

#### 주요용어 : 火病, 화용론

\* 본 논문은 2000년도 고려대학교 특별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1)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2)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철학과 명예교수  
투고일: 2002년 8월 29일 심사완료일: 2003년 1월 28일

또한 화용론은 언어분석을 통해 삶의 체험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는 광의적 의미의 질적 연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화용론은 근거이론, 문화기술지 및 현상학적 방법 등과 같은 방법과는 구분되는 언어 분석적인 방법을 주로 특징으로 삼는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질적 연구는 자료분석과정에서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연구팀원간의 합의과정을 거치거나 혹은 연구대상자에게 최종적인 기술을 확인시키는 순환적 과정, 지속적인 환원과정 등을 거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화용론은 언어분석을 통해 그 문맥에서 문장이 적절하기 위해 문맥에 의해 충족되는 조건에 대한 것을 고찰함으로써 화용론 자체가 신뢰성 및 타당성에 관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근거이론과 같은 질적 연구방법에서는 원자료(raw data)에서 주제(theme)를 그룹화하고 다시 그것에서 중심의미(core meaning)를 유형화한다는 점에서 광의의 객관성 연구인데 반해 본 연구에서의 화용론은 통계연구나 질적 연구와는 구별되나 기능적으로 보완적인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계연구를 주로 하는 양적 연구방법과 흔히 질적 연구방법으로 사용되는 현상학, 근거이론 및 문화기술지 등과 같은 방법으로 구분되는 현행 간호학 연구에서 본 연구가 새로운 언어분석방법론을 간호학문에 접목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 연구 목적

火病의 본질은 '火'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위에서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그 '火'는 불을 뜻하는 데서 유래되었으나 장작불이나 석탄 불과 같이 경험되는 불이 아니라 그 불에 비유하여 심적 상태나 활동을 뜻하였다. 따라서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상용어로 "애가 탄다", "애를 녹인다", "애끓는다", "가슴이 탄다", "속이 끓는다", "입술이 마르고 목이 탄다"와 같은 표현의 발화외적행위(illocutionary act)에 주목하여, "탄다", "마르다", "끓는다"라는 불의 기능을 통해 그 심적 활동(mental act)을 추정하는 화용론적 방법을 취하게 되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화용론적 방법에 의한 의미를 규정함으로써 화병의 체험 사례들 간에 공통적으로 지니는 서로 유사한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Khim, 1999). 가령, 'X는 화병 환자다'라는 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유사성으로서 다음의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1. X는 자신이 누구에겐가 '不當'한 일을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自家診斷).
2. X는 그 부당한 일에 대응조치가 불가능하여 참아왔다(火).
3. X는 그 결과 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身體化).

4. X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N의 돌봄을 필요로 한다.

火病의 발생은 '不當性'과 연관된 주관적 체험이고 체험자 스스로 火病을 진단하는 것이 특징임으로 첫 번째 조건인 '믿음'조건은 본 연구에서의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왜냐하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자신이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믿지 않으면 火病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고도 부당한 일을 지속적으로 당했다고 믿게 되면 火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두 번째 조건은, '대책불능'으로서 첫째 조건에 종속되게 마련이다. 그리고 세 번째의 조건인 '고통'을 인과적으로 밝히려면 경험 과학적인 실험이나 조사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세 번째 조건은 서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그간 학계에 보고된 화병의 일반론적인 연구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화병의 관련요소 및 증상 등에 대한 보편적 규칙에 대한 언급을 의미한다. 하지만 네 번째의 조건인, '돌봄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경험 과학적 방법외에 돌봄이(one caring) N이 돌봄이(one being cared for) X에의 지향성과 그의 체험을 추체험하는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대책불능조건, 고통조건 및 돌봄 요구 조건은 모두 믿음조건에 종속됨으로써 간호사는 환자가 믿고 있는 '不當性'에 관해서도 냉철하게 분석할 수 있는 논리적 사고능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유형의 환자들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가 요망되었다.

따라서 火病의 근원과 그 의미를 밝히기 위한 본 연구는 내담자2)의 사례에서 '不當하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하면서 '화병'의 用語가 전체 맥락 속에서 특징인(경숙母)에 의해 어떻게 쓰였는가에 관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不當하다'는 것의 '前提'를 파악한다.
- '不當하다'는 '前提'의 근거를 파악한다.
- '不當하다'는 '前提'의 의미를 파악한다.

## 연구방법 및 진행절차

###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채용하고 있는 Austin(1976)의 前提이론(presupposition theory)은 화용론의 한 영역으로서 문장의 진리조건(truth-condition)과 구별되는 적절성 조건(felicity-condition)

- 2) 내담자란 연구 참여자를 뜻하는 것으로서 전화 혹은 면담을 통해 상담하는 대상자를 일반적으로 일컫는 용어이다. 따라서 대칭적 용어는 상담자가 된다.

을 분석 틀로 함으로 話者의 발화내용을 맥락이나 상황에 알맞도록 적절히 해석하는데 가치가 있다. 진리조건은 한 문장(혹은 명제)의 참과 거짓을 논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조건이지만, 적절성의 조건은 맥락과 상황에 맞게 용어가 적절히 사용되기 위한 조건이다. 즉, 적절 개념이란 한 문장이 논리적인 판단에 따른 참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적절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적절한 언어사용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적절성 조건 가운데 하나는 의사소통 규범에 의해 나타나는 대화 자격 규범(the norm of competence)과 대화 초점 규범(the norm of relevance or point)이다.

대화 자격 규범(The norm of competence)이란 話者는 자신이 말하는 것에 대해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면 話者는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확신 하에, 이에 대해 충분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대화 초점 규범(the norm of relevance or point)이란 언어로 이루어진 모든 언급은 말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초점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위에서 설명된 대화 자격 규범과 대화 초점 규범에 따라서 어떤 구체적인 묘사(즉, 전제)에 대해 화용론적 분석(pragmatic analysis)을 한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선 話者는 자신이 말하는 것(즉 전제)에 대해 성실해야 하고(대화 자격 규범) 구체적인 묘사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대화 초점 규범). 대부분의 경우 묘사는 우리가 언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술하기 위해 쓰인다. 따라서 말을 할 때에는 대화의 주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하고, 그것에 대해 話者나 聽者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話者 자신이 말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여기서 話者가 말하고자 하는 바의 근거를 제시한다는 것은 바로 話者가 어떤 대상에 대해 제대로 설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말을 할 때 반드시 갖추어야 할 대화 자격의 조건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火病체험자가 '화병'이라는 특정 용어를 어떠한 상황과 맥락에서 사용하였는지 밝히기 위한 목적을 지니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화용론의 한 영역인 오스틴의 前提이론을 분석틀로 활용하였다.

### 연구의 참여자

#### ●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의 참여자는 K대학병원 내과 외래에 '화병'을 호소하며 내원 한 환자 및 여성의 전화에 '火病'을 호소하며 전화상담을 요청한 4인의 주부들이었다. 이들 중 본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이 된 사람은 경숙母로서 17회까지의 상담이 가능했기에 전형적인 연구참여자로 선정되었다. 나머지 3명의 자료는 상담이 1~3회로 그치고(자료수집 방법 참조) 본인들이 상담을 지속시키기 원하지 않아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였다.

#### ● 참여자와의 관계 형성

첫 전화상담에서 내담자 자신이 '가정 일로', '원인제공을 알고 있고', '제가 마음이 왜 이렇게까지 갔다는 걸 안다'고 진술하면서 '마음이 이럴 때 상의를 드리고 도움을 받고, 좋은 말씀을 듣고 싶어서라고 표현하여 내담자가 '이야기하고 싶어함'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상담자는 '그러시겠군요', '전화 잘 하셨습니다', '많은 주부들이 그래요. 주부님 혼자서 겪는 일이 아니니까', '저라도 화날 것 같은데요', '이해가 되지요' 등의 반응을 보여 참여자의 입장에 공감해 줌으로서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 놓을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신뢰감 형성에 초점을 두었다.

#### ● 참여자 보호

간호학 연구의 목적은 학문적 관심과 함께 연구대상자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것이므로 윤리적 차원에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연구자 자신은 전화 상담을 하는 자원봉사자임을 소개하고 본 화병 연구가 다른 여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구체적 목적을 설명한 뒤 동의를 구하였다.

연구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담자의 인구학적 내용(익명성)이나 면담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내담자와 약속하였다(비밀성).

### 자료수집

본 연구에 앞서 연구자는 예비연구로 K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화병 클리닉' 담당교수의 주선으로 火病이 있다고 호소하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상담실에서 직접 만나서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이때는 대상자가 계속 침묵하였고 연구자가 묻는 말에 대해서만 대답하는 식의 기계적인 면담 이상이 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화병환자가 주치의와의 면담에서 쌓인 감정을 이미 다 배설하고 난 후여서 연구자와의 면담에서는 더 이상의 '火'를 노출시킬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으로 사려되었다. 이것은 정화작용(catharsis)으로 첫 면담에서 쌓인 감정을 배설하고 나면 다음부터는 다시 또 '감정의 억제기전이 작용되어 곧 답답해 지는 것이라는 연구보고(Lee, 1977)와도 일치되었다. 또한 이때는 환경이 인위적인 설정이어서 참여자가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를 계속 물어 오고 몹시 긴장된 듯 보여 화병환자의 자료수집은 자연스러운

환경설정이 우선 순위임이 예비연구에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자연스럽게 환경이 설정되면서 화병환자의 의명성이 보장되는 '여성의 전화'(서울시 중구 장충동 소재, 전화번호: 02-2263-6464)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면서 이곳을 자료수집 통로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자의 활동영역은 전화상담으로서 '98년 8월부터 1회 3시간씩 週 1회~2회 자원봉사를 하였다. 자원봉사 기간 중에도 화병이 있어 전화 한 내급자는 여러 명 있었으나 지속적인 전화상담은 회피하는 경향이었는데 이것은 중도탈락이 많다는 연구보고를 뒷받침해주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담자 자료는 연구자의 자원봉사 기간 중(1998년 8월~2000년 8월 현재) 수집된 것이다. 상담횟수는 총 17회이었으며, 1 회 상담소요 시간은 7분~120분으로 1 회 평균 상담시간은 약 60분이었다. 따라서 질적 인터뷰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된 전화 상담자료를 주 텍스트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한 대상자 내에서 자료가 포화되었다고 판단될 때 종료하였으며(연구를 위해 종료시점을 정하였다는 뜻이며 이 참여자와는 여성의 전화에서 상담을 계속하고 있음) 녹음된 자료는 매 상담 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연구자가 필사하였다.

전화녹음을 통해 수집된 상담자료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내담자의 말 그대로 옮겨 적었으며, 상담 중 파악된 내담자의 억양이나 한숨과 같은 감정은 ( ) 속에 옮겨 적어 이를 컴퓨터에 입력하였다. 필사자료는 A4용지(글자 크기 10, 줄 간격 150)로 225장 분량이었다.

### 자료정리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 틀은 Austin(1976)이 제시한 前提이론을 근거로 분석하였으며, Austin의 적절성 조건(felicity-condition)을 적용한 본 연구의 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화병체험자의 느낌을 얻기 위해서 필사한 내용을 집중해서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아래의 개념과 관련된 진술을 도출하였다.

- 내담자가 주장하는 '不當하다'는 것의 前提 진술 확인 (전제)
- 내담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의 근거, 즉 前提에 대한 근거와 관련된 진술 확인(대화 자격 규범)
- '不當하다'고 하는 '前提'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내담자가 구체적인 묘사를 하는 목적과 관련된 진술확인 (대화 초점 규범)

### 연구 결과

<사례>

43세의 내담자(경숙모)는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고 대학 1학년생인 아들과 고등학교 2학년생인 딸을 두고 있다. 결혼 후 '집에서 논 적이 한번도 없이'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 일을 하거나 혹은 남의 집 아이를 길러주는 등 꾸준히 부업을 하여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었다. 火病이 발발한 후로는 '나중에 힘이 되는 것은 돈뿐'이라 생각되어 週中 직업 週末 직업 이렇게 이중 직업을 가지고 자신만의 독립된 저금통장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배우자는 48세의 버스 운전기사로 월 약 백 십여 만원의 수입이 있고 부부 모두 초등학교 졸업의 학력이다.

결혼 초부터 먹고살게 없어서 3개월 된 아들 업고 남의 집 처마 밑에서 호느껴 운일, 남편이 숫하게 빚지고 외국 갈 때 몸빼 바지 하나 입고 그 빚 다 갚고 알뜰살뜰히 살면서 애들 키우고 깨끗하게 살은 것, 남편이 대형 인사고를 두 번이나 내, 집 매입 잔금을 치르지 못하게 되었을 때 어렵게 돈을 마련해 결국에는 집을 마련하게 된 것 등은 힘들었던 과정이었으나 한편으로는 경숙 母의 힘으로 집안을 일으켰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결혼 초 이란사태로 운전사들이 직장을 잃었을 때의 경험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미어지고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고 목이 메이는 일'이었다.

'허리띠 졸라가며 남편을 위해서만 살고 자식을 위해서만 살고', '마음으로도 나한테는 30분도 시간을 투자한 적이 없으면서 쓰레빠 하나, 양말 2켄레 가지고 2년, 4년 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고 13년째 되던 해에 경숙母가 '죽느냐 사느냐'하면서 입원할 때(간염과 당뇨병으로)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병', '병원에 가야 아무 것도 소용없다'는 '충격적이고 치명적인 말'을 하는 남편의 태도에서 '인격적으로 너무 실망' 해 '그 날로 너는 내 남편이 아니다', '내가 걸으로는 내 의무로 살지만 속으로는 나는 너 부인아니야. 이 순간부터는 원수로 생각하고 너는 내 남편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또 검사 받기 위해 식사를 굶고 다니면서도 돈이 아까워서 택시 탈 생각을 하지 못해 걸어다니느라 집에 오면 지쳐 쓰러져 아무 것도 먹지 못하고 누워있을 때 '당신 왜 그래 어디 아파, 이려고선 물이라도 떠다줘야 하든지, 다만 가게에 가서 쥬스라도 사서 먹일 생각을 해야지.. 그런 거 한번 없어..', '내가 그 정도밖에 대가가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경숙모는 남편이라면 '당신 수고해. 그래도 그 돈 갖고 이렇게 살림하고 이 만큼 살게 했으니 내가 할말이 없다 구. 고맙다구.. 이런 소리라도..', '내가 (돈걱정 때문에)입원 안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돈이 문제냐, 애들이 문제냐.. 우선 당신 있고 애들도 있고 나도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입원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하면서 남편이 깨어버린 암묵적인 '상호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따라서 '억울하고 憤한 것'은 남편이 버는 것은 '그냥 목구멍 사는 것밖에 안되고' 가정을 일으켜 세운 사람은 경숙모임

에도 불구하고 병이 들어 가장 힘들 때 우선 순위에서 돈보다도 뒤로 밀리는 '不當한 대접'을 받았는데 그것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내가 여기서 안 살고 나가면 지금보다 더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참고 그냥 사는 것이다.

내가 나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한바탕은 바깥, 대문바깥에다 내놓고 살고 한바탕은 대문 안에다 놓고 살고...

한편 경숙모의 '火'를 폭발시키도록 불붙인 스파크는 경숙모의 중심적 가치를 거스른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남편의 '不當'하고 불경스런 대우로 인해 나타났다.

내가 이견경 한두 번 겪었어야지.. 너더러 돈 다 어디 썼느냐 하고, 통장 넣다 빼다하는거 안보여 준다고 야단하고... 통장에다 넣을 돈이 있어야 넣다 빼다하고 하는 거지. 넣는 게 있어야 빼다도 쓰고 넣기도 하는 거잖아. 근데 통장에다 넣을 새가 있냐구... (중략) 당신 맨 날 통장에다 돈 저축 않는다고 너더러 족치는데, 뭐 갖고 내가 저축을 하겠느냐, 당신 월급 갖고는 다 나가는 것뿐이고, 생활은 내가 버는 것 갖고 하는데 너더러 저축 않는다고 족치는데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난 도저히 못산다. 그러니까 나 나가는 꼴을 보기 싫으면은 당신이 살림을 맡던가 아니면 나 나가는 꼴을 보려느냐, 그 둘 중에 하나 택해라. 그러면서 빈 통장하고 도장하고 내쳤죠.

본 연구의 사례에서 드러난 火病의 원인으로서, 내담자가 '不當하다'고 전제하는 것은 남편은 '아내보다는 돈을 우선으로' 하는 것인데 이러한 사실적 전제(factive pre-suppositions)에 경숙모가 충분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만(대화 자격 규범) 話者나 聽者 모두 공감할 수 있었다. 사실에 대한 전제는 '남편은 돈부터 걱정하고', '아- 우선 나보다는... 나보다는 남편은 돈을 먼저 생각하는구나'와 같이 이미 기정 사실화된 서술을 포함한 문장에서 나타났다. 따라서 내담자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 명확히 밝힐 수 있어야만 논리적 전제가 성립되고, 논리적 전제에서는 적절성 조건(felicity-condition)이라는 검증방법에 의해 충족되어야 문장의 적절성이 인정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만약 내담자의 남편이 생활에서 아내보다는 '돈을 우선'으로 한다면 그 돈으로 아내外的 혹은 가정外的 요소에 사용함을 가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만약 남편이 자신의 수입에 대해서 투명하다면 이 문장은 적절성을 잃게 됨으로 이 전제에 대한 음미검토를 통해 사실을 규명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러나 경숙모 스스로도 배우자에 대한 평가를 '술 안 먹

었을 때 사람도 좋고 점잔고 착하기도 하고 얌전하고..'라고 하였다. 또 배우자의 기본적인 태도를 나타내주는 것으로는 (아내를) 때리는 일은 없지요. 또 평소에는 저한테 말할로 그랬니, 저랬니는 안해요. 그랬어 저랬어 그렇게 하고. 자네가 그랬잖아 이렇허구...;', '다 자기 남편은 바람을 안 편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의 남편은 진짜 바람 안 펴요'와 같이 배우자가 성실한 생활인임을 묘사하고 있었다. 또한 경숙모가 二重 직업을 가져 힘들어함으로 남편이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등 아내를 배려하고 있음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또 남편의 생활력에 대해서는 ('남편이) 술집에 가서 외상 지고, 여자 있는 찻집에 가서 외상 지고 그러는 적은 없어요.. (중략)생활력은 굉장히 강해요;', '그 동안에도 생활력은 강했어요. 우리 신앙이... 저 보다도 더 강했어요...'와 같이 평가함으로서 남편이 자신의 수입을 아내 外的 혹은 가정 外的 요소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내담자의 배우자는 금전적 관리를 내담자에게 일임한 것으로 보아 돈을 아내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내담자가 입원할 때 '돈부터 걱정했던' 것은 그 사람 특유의 표현상의 문제가 아니었다 사려된다. 예를 들면 내담자가 '그저 (남편)앉은 자리에 풀도 안 내려고 그러지', '신랑도 (돈을) 틀어쥐고, 지독할려고 하고...;', '우리 신앙이 그 동안에도 생활력은 강했어요. 저 보다도 더 강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 쓸 때도 못쓰면서 강했고...;', '남편이 살려고는 하는데 지독하고...'라는 표현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평소 내담자가 배우자로부터 기대하였던 '...부부가 무어예요. 가끔 수고했어 자기 사랑해. 이불 속에서라도.. 나 만나서 고생 많이 하지. 넌지시 이렇게 말이라도 해주고 그러면 그게 보람인 거지 뭐예요;', '그 동안에 당신이 (생활에)많이 보태줬지..',라는 말 대신 '(가계부 적지 않고) 혼자 우물쭈물 살림한다고;', '월급 타다 주니까 쿡쿡 들이마시듯이 했다고'하고, 살림을 주먹구구식으로 한다고 따지고, 남의 집은 저축이 얼마라든지와 같은 '功 없는 소리나 하는' 남편에 대해 분노를 나타내었다. 속담에 '어해'다르고 '아해'다르다는 표현은 이러한 경숙모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한편 아이들을 두고 이혼하고 나갔을 때 나중에 아이들이 다 성장하고 난 후 오늘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내담자는 염려하고 있었다. 즉 (아이들) 아빠가 뭐 바람도 안 피고, 화투도 안하고, 술 먹고 기어 들어와서 (아이들)괴롭힌 적도 없고, 엄마 두드려 패는 것도 못 봤고. 지(아이)들 때린 적도 없어' 아이들 입장에서 '아빠가 뭘 잘못하는 거 있느냐'고 인지함으로써 자녀들도 아버지에 대한 불만은 없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경숙모가 '남편은 아내보다 돈이 우선이다'라고 전제 하면서 언급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적(대화 초점 규범)은 남

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의 표현이었다.

내담자는 건강해서 평소 감기약도 한번 먹지 않고 지냈는데, 갑자기 병이 생기면서 '이러다 어린 새끼들 놔두고 죽는 거는 아닌가', '살만하면 죽는다더니 내가 그쪽에 왔나보다 싶어 가지고' 걱정하면서 입원하였는데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남편이 이것을 공감해 주는 대신 '돈부터 생각'하는 것은 내담자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임으로 '억울하고 憤'하였다. 그럼으로 경숙모는 '火'란 개인의 중심적 가치가 손상을 받는 것으로 의미화 하였고 부부간에 가장 중요한 가치인 '상호 배려의 원칙'이 깨지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언어적으로 표면화된 '상호성의 결여' 외에 경숙모에게 내재되어 있는 것은 배우자에 대한 욕구불만이었다. 내재화된 내용은 '그저 (직장)일이나 하고 돈이나 벌어다주면은 그냥 그걸로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남편이 나한테 채워주는 거는 요, 그저 많으나 적으나 월급 타서 갖다 주는 거 그것밖에 없지', '분위기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런 거를 생각을 않고 사는 사람', '우리 신랑은 저한테 채워주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등 남편에 대한 불만이 恨歎의 중심을 이루었고 경제적 어려움 등 기타 생활에 대한 불만은 아니었다. 이러한 욕구 불만을 언급하면 남편은 '시답지 안타고.. 뭐.. 배우른 소리한다고...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더 말할 기분도 아니라고 하면서 현재 내담자는 '생활은 어떻게 하던지 간에 부부간에는 서로 좋아서 살아야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또 연구자가 주부화병의 主要原因이 배우자의 외도, 노름, 酒那, 가정폭력, 경제적 무능력이라고 소개하면서 경숙모의 건실한 생활태도를 가지고 역으로 위로를 시도하자 '그런 것이 없는 건 다행이지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바람피고 노름해서만 이런 갈등을 겪고 사나요?'라고 즉각적으로 반응함으로서 경숙모의 화병은 자신의 가치, 신념 및 권리와 內的 調和가 되지 않는 욕구 불만적 요소로 인해 유발되었음을 뒷받침해 주었다.

또한 결혼당시 경숙모는 '남편은 全知 全能하다'라는 것을 전제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이 욕구불만으로 표현된 것이었다. 이 사실적 전제에 대한 근거는 '그렇게 이상처럼 하고 남편은 하늘이지...'와 같이 이미 가정 사실화된 서술을 포함한 문장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경숙모는 자신의 결혼이 잘못 되었음을 결혼 후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깨달았다. '그때만 해도 제가 너무 아무 것도 모르고, 사람 볼 줄도 몰랐고 사람 보는 시야도 없었고.. 지금만 같아어도 살다가도 도망가는데 근데 그때는 그저 그냥 하는 건가보다'하고 '그냥 막연히' 결혼하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신이 받은 피해의 결과는 회복이 불가능한 결혼이라는 결과를 기정사실로 수용해야 한다는 데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냈으며 그러한 피해의 원

인이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돌이킬 수 없는 실수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과 더불어 자책성 원망이 '억울' 감정에 개입되어 있었다.

따라서 '당신 만나서 내가 이렇게 살면서.. 당신 머리대로 우리(가족이)가 이렇게 사는데...', '어찌다가 내가 저런 사람을 만나서 힘들게 사느라...'라는 것은 경숙모가 처한 현재의 상황에 대해 상대방 배우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킨 것으로서 타인에 대한 기대감이 충족되지 못할 때 기대감 그 자체가 적대감을 발달시키는 요소가 된 것(Roberts, 1986)이었다.

나는 우리 신랑한테 내 아들을 낳았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 피를 받아서 내 자식을 낳았다는 게 난 너무 비참하고 싫은 거예요, 우리 아들, 딸을..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의 피를 받아서 내 자식을 낳았을까. 내가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경숙모의 피해심리를 더 가중시킨 것은 남편의 가정 경제 부담요구였다. 왜냐하면 암묵적인 '상호관계'를 깬 사람은 경숙모인데, 게다가 남편이 가정 경제를 같이 부담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경숙모를 '不當'하게 이용하는 것임으로 배우자로부터 '기만당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피해결과에 대한 수용 거부감은 더욱 커지고, 경숙모가 결혼에 기대한 바람의 '크기'만큼 실망의 '크기'가 鬱積으로 나타난 것이었다.

## 논 의

본 연구의 결과 내담자의 火病은 내담자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호성 결여'라는 요소로 인해 유발된 것이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상호성 결여'라는 요소가 어떻게 '억울하고 분한' 정서상태로 진전되었는지 '火'의 생성과정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내담자가 호소하는 억울함에는 '마음으로나마 나한테는 30분도 시간을 투자한 적이 없었으면서' 등과 같은 심정논리(Choi와 Lee, 1995)가 저변에 있었다. 내담자가 자신의 심정논리를 상담자라는 타인에게 토로하면서 '남편과 자식만을 위해서 모든 걸 걸고 희생적으로 살았다', '남편이 하늘이고 복종해야 되고 남편을 최고로, 이상처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오로지 애들과 신랑 뒷바라지...'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정의 기준과 객관적 논리 전개의 양식을 차용하여 자신의 억울 감정을 정당화시키려는 의도를 내포한 것이었다.

따라서 경숙모 화병의 심리적 과정은 경숙모 입원 시 남편의 태도가 '너무 치명적'이어서 '그 날로 저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구나.. 그래서 아- 내 남편은 아니구나. 내가 걸으로는 내 의무로 살지만 속으로는 나는 너 부인 아니야. 너는 내 남편

이 아니야 이 순간부터는 원수로 생각하고... (중략)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만 살 거야라는 결심을 하면서 '억울하고 분'한 '火'의 심리가 발생한 것이었다. 이러한 '억울하고 분'한 심리 상태를 추론할 수 있는 준거단서는 '남편이 숫하게 빗지고 외국 갈 때 몸빼 바지 하나 입고 그 빗 다 갖고 알뜰살뜰히 살면서 애들 키우고 내 집을 마련하고 이 집안을 일으켰다'는 사회적으로 공유된 매우 구체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규정이 역으로 '화'라는 심리현상을 만들어 냄으로서 억울하고 분하다는 말을 믿고 사용하면서 그러한 심리적 현상이 만들어진 것이었다(Choi와 Lee, 1995). 이것을 Choi와 Lee(1995)는 인간의 심리는 사회적으로 생성되며 언어가 심리를 생성시킨 것으로 설명하였다. 한편 Watson(1999)도 "생각에 의해 정서가 바뀐다"(p. 112)고 하면서 '이용당했다', '속았다'라는 심리는 화, 증오, 복수심 등을 유발시킨다(p. 111)고 하였다.

경숙모의 '억울하고 분'한 감정의 강도는 자신이 받은 주관적 피해의 크기('치명적이었고 만정이 떨어졌다'), 피해의 회복 불가능성 및 피해의 대체 불가능성('어쩔 수 없는 것이고, 살긴 살아야지', '나를 희생하면서'), 자책성 원망('어쩌다가 내가 저런 사람을 만났나', '어쨌든 내가 택한 일이었고 어쩔 수 없는 것이지'), 가해방법의 교활성, 기만당했다는 생각('내가 이 십년을 힘들 때 저(남편)는 그 만큼 편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자기를 의지해야 하는데 나를 믿고서 그렇게 했다는 게) 및 자아가 관여된 자책 및 원망의 감정('한순간의 실수가 평생을 좌우하는 것') 등 복합 발생에 의해 영향을 받아 참고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강한 것이었다. 이러한 격양감정은 자신의 자존심과 존재성이 파괴되는 피해 의식성 흥분이기 때문에 '불쾌감정의 자기 내적 확대 재생산화 심리기제'(Choi와 Lee, 1995)와 연관된 것이었다.

한편 火病이 주관적 체험임에도 불구하고 내담자의 형제도 '네가 화병에 걸릴만하다'라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이유는 화병의 준거단서가 언어-사회-문화적으로 공유되어 규정(Choi와 Lee, 1995)되었기 때문이었다. 즉 '결혼해서 굶어도 봤는데 경숙모의 노력으로 오늘날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에 대한 배려의 결여로 인해서와 같은 '화'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남편이라면 그럴 수 없는 것이고, (경숙모가)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와 같은 반응이 일반인이 생각하는 火 발생 원인이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공유된 준거단서가 당사자는 물론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화병이 어디에서 연유하는지 통찰력을 갖게 하는 요소인 것이었다.

한편 경숙모는 火病이 나왔다고 하나, 남편의 '가정 경제 분담'요구와 같이 '돈'과 관계된 사건에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돈' 문제가 일상생활에서 대두될 때마다 '그 생각을 하니 얼마나 속상한지',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원통한지' 등 남편이 아내를 '돈'의 가치만큼도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火'를 다시 둔구면서 감정의 상승효과가 생겼다. '火'를 나게 했던 7-8년 전의 일을 마치 엇그제 일어난 것 같은 기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였고 이렇게 화병의 유발단서에 접할 때 상기적으로 일어나는 火를 Choi와 Lee(1995)는 '순환적 火'라고 명명하였다.

종합하면, '火病'을 가지고 있는主婦내담자가 전제하였던 것은 배우자가 '아내보다는 돈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었는데 내담자는 이러한 '상호성 결여'를 사회적 정의의 기준과 객관적 논리 전개의 양식을 차용하여 '부당하다'고 規定한 것이었다. 내담자가 의미하는 '상호성 결여'에는 배우자에 대한 욕구불만 즉 사항이 가미되어 있었다. 한편 내담자가 '상호성 결여'가 '不當'하다고 얘기하는 목적은 내담자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욕구의 표현이었다. 따라서 배우자로부터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한 경숙모의 삶에서 상기적으로 '火'가 발생할 것이고 이러한 火의 표출은 배우자와의 '상호성 회복' 수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한편 Austin(1976)의 전제이론(presupposition theory)은 타당성과 신뢰성을 내재한 이론임이 본 연구에서 검증되었는데 왜냐하면 본 火病사례에서 경숙모가 자신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아 상호성이 결여되었다고 의미화한 내용과 사실적 前提('아~ 우선 나보다는... 나보다는 남편은 돈을 먼저 생각하는구나')는 맥락적으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이었다.

## 결론 및 제언

###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화병이 있다고 주장하는 가정주부를 심층적으로 상담함으로써 화용론(pragmatics)이라는 언어 분석적인 방법에 의해 화병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있었다. 火病의 사례는 '여성의 전화'에서 연구자가 전화상담을 통해 수집하였다. 상담내용은 Austin(1976)의 적절성(felicity) 개념을 화용론적 분석틀로 삼아 검토하였다.

상담사례에서 내담자는 남편에게 '不當'한 일을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내담자가 사용하는 火病이라는 용어는 '자신의 욕구가不當하게 좌절되었다'는 말에 표현된 주관적 판단을 가지고 '火病'이라는 용어를 부여한 것이었다. 즉 내담자의 희생적 노력에 대해 제일 가까운 남편이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해주지 않고, 위로해 주지 않아 '不當'하고 '억울하고 憤한 것'이었다. 내담자가 주장하는 '부당성'은 심정논리에 기초한 '주관적' 억울 감정을 사회적 정의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논리 전개의 양식을 차용하여 주관적으로 정당화한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火病을 가지고 있는 내담자에서의 '火'란 '상호성 결여'를 의미하고, 火의 표출은 배우자와의 '상호성 회복' 수단을 의미하였다.

### 간호학적 의의

본 연구에서의 간호학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논하고 있는 화용론적 분석은 언어분석철학의 한 분파인 일상언어학과에서 사용되는 분석방법이지만, 여기서는 간호연구의 한 방법으로 응용해 본 것이었다. 화용론적 분석이 화병에 대한 간호연구에 응용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는 바로 화병이 지니는 고유한 특성을 바로 화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맥락과 상황에 대한 언어적 분석을 통해 밝혀낼 수 있으며, 이러한 화병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간호중재에 대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만약 상담자가 경숙모가 화병환자나 아니냐의 의문이 일어나서 화병의 개념 그 자체를 문제삼는다면 그것은 간호학문에서의 메타 수준의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그 화병이 논자가 처해 있는 의료사회에서 개념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과연 경숙모 자신이 화병이라는 용어를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분석해 보고, 경숙모가 화병을 주관적으로 어떻게 체험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간호학적인 문제인 것이었다. 따라서 논자는 이 연구를 통해서 화병의 용어사용에 대한 화용론적 분석이 화병을 체험하는 각 각의 대상자에 대한 간호중재를 모색하기 위한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화병의 연구가 활성화되는 데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보여주려 하였다.

간호사는 의과학의 이론이나 원칙들을 근거로 간호행위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항상 그 원칙들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간호사가 구체적인 환자에게 어떤 합의된 원칙을 적용하려고 할 때, 그 원칙을 특정한 사례에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상황에 도달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이 경우를 정성분석학적 이론 틀(Lee, 1977; Lee 등, 1989)을 가지고 화병의 개념을 이해하는 예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화병의 초기를 火氣가 강해 불안증후군으로 보고 火病의 말기를 鬱氣가 강해 우울증후군으로 진단하고 火症과 鬱症이 복합적으로 공존한다'라고 화병의 의학적 개념을 이해한 간호사의 경우라 할지라도 상담사례에서 살펴본 경숙모가 과연 화병환자나 아니냐의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아래와 같이 서로 상반된 견해를 나타낼 수도 있을 것이다.

즉 화병에 대한 화용론적 접근이 지니는 간호학적 의미를 'X는 자신이 누구에게 부당한 일을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다고 믿고있다.'는 화병 환자의 조건을 통해 간호사의 판단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1. 간호사는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환자는 부당한 일로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경우, 2. 간호사도 부당하게 여기는 것을 환자도 그렇게 믿고 있는 경우, 그리고 3. 마지막은 관점에 따라서는 부당하다고 할 수도 있고 부당하지 않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을 환자는 부당하다고 믿고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간호사가 적절한 간호중재를 하기 위해서는 각 맥락과 상황에 따라 사용되는 화병이라는 언어의 용법을 이해하는 분석적 해석학적 思惟방식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럼으로 다양한 간호현장에서 의학적 처방에 따라 주어진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사고의 한계를 넘어서 간호사는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과 해석을 해야한다. 이때 필요한 사고 방식이 바로 맥락과 상황에 따른 적절성 판단에 관한 Austin(1976)의 화용론적 분석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화용론적 분석방식은 바로 간호연구 뿐만이 아니라, 간호 실무에서 바람직한 적절한 간호중재를 위해 요구되는 분석적이며, 의미 해석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되었다.

이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화용론을 통해 연구자와 대상자 모두 억울함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는 상호 주관적인 이해의 영역을 확장시켜 줄 수 있다는 데에 있었다. 따라서 간호연구의 방향을 객관적인 실증주의적 사고로부터 벗어나 인간 상호간의 주관성영역으로 폭넓게 나아가려는 시도를 한 것이었다.

특히 본 연구는 미래사회의 질병 유형이 간호사의 역할에 크게 의존하게 되리라는 전망 하에서 화용론이라는 언어사용의 용도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통해 인간 삶의 체험으로서의 화병을 이해하여, 이를 간호연구와 간호중재에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이려고 하였다.

### 화병과 관련된 제언

본 연구의 사례에서 내담자는 배우자의 '상호성 결여'가不當하다고 믿음으로서 火病의 심리가 발생된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화병 대상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간호중재방법에 대해 연구할 필요성을 제언한다.

또한 火病을 학문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화병 환자들이 스스로 부여하는 화병이라는 용어의 상황-맥락적 분석을 통해 화병의 의미를 우선 이해해야 함으로 원인적 요소가 다양한 사례들을 축적할 필요성을 제언한다.

### References

Austin, John (1976). *How to do things with word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Choi, S. C., & Lee, Y. H. (1995). A Psychological Conceptualization of Koreans' Hwa-Byung. *Presented at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Korean Psychology Association, Korea.* 327-337.
- Khim, S. Y. (1999). The Concept of Hwa-Byung in Nursing. *J Korean Acad Nurs, 29(6)*, 1221-1232.
- Kim, J. W., Lee, J. H., Lee, S. G., Eom, H. J., & Whang, W. W. (1996). A Clinical Study on Hwa-Byung with Hwa-Byung Model of Oriental Medicine. *Korean J of Stress Research, 4(2)*, 23-31.
- Lee, S. H. (1977). A Study on the "Hwa-Byung". *J Koryo General Hospital, 1(2)*, 63-69.
- Lee, S. H., Cho, S. Y., Lee, S. H. (1989). Processing Mechanism of "Hwa-Byung" as the Wool-Hwa Disease. *J of Koryo General Hospital, 12*, 151-156.
- Min, S. K. (1989). A Study of the Concept of Hwa-Byung. *J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 28(4)*, 604-616.
- New Ace Korean Dictionary* (1999). Keum-Sung Publisher.
- Park, J. H., Min, S. K., & Lee, M. H. (1997). A Study on the Diagnosis of Hwa-Byung. *J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 36(3)*, 496-501.
- Park, Y. J., Kim, H. S., Kang, H. C., & Kim, J. W. (2001). A Survey of Hwa Byung in Middle-Age Korean Women. *J of Transcultural Nur, 12(2)*, 115-122.
- Roberts, Sharon L. (1986). *Behavioral concepts and the critically ill patient*. Norwalk: Appleton-Century-Crofts.
- Smeltzer, S. C., & Bare, B. G. (1992). *Brunner and Suddarth's Textbook of medical-surgical nursing*(7th ed.). J. B. Lippincott Co.
- Thomas, S., Smucker, C., & Droppleman, P. (1998). It Hurts Most Around the Heart: A Phenomenological Exploration of Women's Anger. *J of Advanced Nur, 28(2)*, 311-322.
- Watson, J. (1999). *Postmodern nursing and beyond*. Churchill Livingstone.

## Exploring the Nature of "Hwa-Byung" Using Pragmatics\*

Khim, Soon-Yong<sup>1)</sup> · Lee, Cho-Sik<sup>2)</sup>

1)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orea University

2) Honorary Professor, Dept. of Philosophy, College of Liberal Art, Korea University

**Purpose:** While most psychiatrists diagnose *Hwa-Byung* as a chronic psychogenic disorder associated with familial, financial and personality, the purpose of study was to shed light on the nature of *Hwa-Byung* through pragmatics. *Hwa-Byung* is characterized as 'Hwa' which means fire 'Byung' which means disease. This condition cannot be empirically experienced, rather it is represented by suffering internally (in the mind). It also could find an aspect of somatization, and self-diagnosing. **Method:** As patients themselves diagnose *Hwa-Byung*, pragmatism approach was taken to analyze the context of the learning through their communication with others. The case examples resulted from in-depth telephone counseling with a client who is housewife with *Hwa-Byung* over a period of time at the Women's Hot Line. **Result:** The study showed that the client experienced continuous improper attacks by her husband. She expressed impropriety by applying her personal emotions to social-justice reasoning. **Conclusion:** 'Hwa' means lack of mutual intimacy in this research. By expressing this 'Hwa', the client would like to recover mutual intimacy with her husband.

Key words : "Hwa-Byung", pragmatics

\* Supported by a Korea University Grant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him, Soon-Yong

College of Nursing Korea University

126-1, 5-ka, Anam-dong, Sungbuk-ku, Seoul 136-705, Korea

Tel: +82-2-3290-4913 Fax: +82-2-927-4676 E-mail: asyk@korea.ac.kr